

보도 일시	2022. 2. 23.(수) 09:00 2022. 2. 23.(수) 석간	배포 일시	2022. 2. 23.(수) 09:00
담당 부서 <총괄>	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	책임자	과 장 김동현 (044-202-7554)
		담당자	주무관 이상엽 (044-202-7562)

2월 23일부터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용자 온라인 접수 시작

-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와 근로복지공단(이사장 강순희)은 2월 2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용자사업의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.
-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용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,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1인 자영업자(산재보험에 가입)가 신청할 수 있다.
 - ① (근로자·특수형태근로종사자) 용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, 월평균소득이 419만원(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) 이하일 것
 - * 일용근로자는 용자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
 - *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용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·이직신고내역 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
 - ② (1인 자영업자) 용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, 월평균소득이 419만원 이하이며,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
- 위 용자는 금리 연 1.5%(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.9% 별도),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용자받을 수 있으며,
 -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용자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.

- 재직요건·소득요건 등 **용자요건 적격 여부** 심사는 **근로복지공단**에서 수행할 예정이며, 심사과정에서 용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청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자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.
-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용자는 복권기금에서 1,000억원의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, **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.**
 - 2022년 2월 23일, 수요일부터 **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(welfare.comwel.or.kr)**을 통해 직접 용자를 신청할 수 있고, 3월 2일부터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-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“한시 생계지원비 용자사업이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절박한 사정에 처한 고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.”라고 밝혔으며,
-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“생계지원비 용자는 기존 생활안정자금 용자보다 용자요건을 상당히 완화했으나,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 등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.”라고 말했다.
-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용자사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, 전담 전화 상담센터(☎1644-0083)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(welfare.comwel.or.kr)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	책임자	과 장	김동현 (044-202-7554)
		담당자	주무관	이상엽 (044-202-7562)
<공동>	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	책임자	부 장	심희선 (052-704-7301)
		담당자	팀 장	전정순 (052-704-7306)

